

Unseen footage, untamed nature

00:12	전 엄청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 특권을 누리 왔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와 거기사는 사람, 생명체들을 직접 보는 특권을요. 그리고, 이런 저의 열정은 제가 7살이었을 때, 부모님께서 처음 저를 모로코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데려갔던 때의 영향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작은 영국인 꼬마에게 춤지도 않고, 눅눅하지도 않은 그곳이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었을지. 이것이 절 더 욱 더 탐험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00:41	영상 제작자로서, 전 지구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완벽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또, 발견된 적 없는 동물의 행동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게다가, 정말 행운이었던 것은,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의 지구를 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매일 아침 저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01:10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이야기들과 새로운 주제를 찾는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신기술이 영상화 할 수 있는 범주를 바꿔놓고 있어요. 신기술은 우리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하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게 하죠. 자연의 위대한 광경(In Nature's Great Events)이라는 제가 데이빗 애튼버러와 작업했던 BBC의 시리즈물에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01:34	그리즐리 베어의 모습은 꽤나 친숙하죠. 여러분은 자신이 이 곰들을 항상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그동안 우리가 거의 볼 수 없었고, 한번도 영상화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일은, 알래스카에 간거죠. 그곳은, 그리즐리베어들이 의지하여 살고 있는 매우 높고, 거의 가볼 수 없는 산비탈들이 있는 곰들의 서식굴이 있는 곳 입니다. 그곳을 촬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중에서 찍는 것이었죠.
02:06	(영상) 데이빗 애튼버러, 알래스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캐나다 서부의 한 지역)를 통틀어 수천 마리의 곰 가족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먹이감이 아무것도 없지만 동면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서식굴을 파낼 많은 양의 눈도 있습니다. 먹이를 찾기위해, 엄마곰은 새끼들을 아래쪽 이미 눈이 녹은 연안쪽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랫쪽으로 가는 것은 어린 새끼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산들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곰가족들에게는 어쩔수 없는 운명입니다. 북대평양의 모든 곰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연어에 의존하여 살고 있으니까요.
03:32	KB: 저는 이 장면이 좋습니다. 매번 볼때마다 항상 소름이 돋습니다. 이 영상은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자이로를 이용해 평형을 잡는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이것은 매우 훌륭한 장비입니다. 날으는 삼각대, 크레인과 이동식촬영기가 합쳐져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값진 장면을 얻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04:00	첫해에 우리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해에 알래스카의 광활한 지역을 모두 통과해서 다시 गया했죠. 2주내내, 헬리콥터를 타고 헤매고 다녔죠. 그리고 결국엔 행운을 잡았습니다. 구름은 걷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심지어 곰들까지 모습을 드러낸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법같은 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4:25	영상 제작자로서, 신기술은 아주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가지. 이걸 정말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동물종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저는 어떤 동물에 대해 듣게 되면, 그것이 저의 다음 시리즈의 소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야생 그대로의 아메리카' (Untamed Americas)라는 시리즈입니다. 2005년에 박쥐의 새로운 종이 에콰도르의 클라우드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진짜 경이로운 점은 이 발견으로 어떤 특별한 꽃의 품매에 관한 (품매 : 바람, 곤충에 의한 꽃가루의 수정, 수분) 미스터리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박쥐의 덕분이었습니다.
05:03	이 시리즈는 아직 방송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영상) 네레이션;; 긴주둥이박쥐 입니다. (tube-lipped nectar bat) 맛있는 꿀물이 들어 있는 긴 관처럼 생긴 꽃의 바닥까지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요? 필요는 진화의 어머니 입니다. (음악) 이 2.5인치(6.35cm) 크기의 박쥐는 3.5인치(8.89cm)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상대적인 혀의 길이가 지구상의 포유류 중에 가장 길니다. 만일 사람으로 치면, 우리는 9피트(약 2.74m)의 혀를 가지게 됩니다. (박수) KB: 혀가 참... 우리는 꽃의 밑부분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뚫고, 40배나 느린 슬로우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나 빨랐을지 상상해 보세요.

06:45	요즘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없습니다. 훌륭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곳은 계속 돌아오도록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아주 외진데 위치한 한 곳이 있는데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저는 배낭여행자였습니다. 이후 촬영을 위해 저는 몇번이고 이곳을 다녀왔죠. 가장 최근엔 '야생 그대로의 아메리카'를 촬영하기 위해서 였어요. 이곳은 남아메리카 안데스 고원에 위치한 알티플라노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외계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15000피트(약4.6km)는 꽤나 험합니다. 얼음이 어는 추위에, 희박한 공기는 여러분을 정말 기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때는 정말 숨을 쉬기도 힘이 듭니다. 특히 무거운 촬영 장비들을 모두 지고 올라갈 때는요. 그리고 지끈거리는 두통은 계속 숙취를 겪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울 정도로 희박한 대기에서의 장점은 천상의 별들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선명하게 말이죠. 한번 보세요.
07:51	(영상) 약 1500마일(약 2400km) 남쪽의 열대지역, 칠레와 볼리비아 사이에 안데스는 완벽하게 변화합니다. 이곳은 알티플라노, 또는 ”고원”이라고 불립니다. 극한의 환경과 극한의 대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막은 얼어붙고, 물은 끓어 넘칩니다. 지구보다는 조금 더 화성에 가깝고, 생명체가 살기에는 가혹해 보입니다. 별들은 그 본연의 모습입니다. 12000피트(약 3.7km)의 건조하고 희박한 공기는 별을 관찰하기에 완벽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천문학자들은 가까이엔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맨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망원경도 필요하지 않죠. (음악) (박수)
10:04	KB: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장대하고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수)